

KIA 4위...프로야구 중위권 싸움 치열

SK 5위 롯데 6위 나머지 팀 전반기 순위 그대로 이어가

프로야구 후반기가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여전히 가을야구 싸움이 치열하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주(19~24일) 파죽의 6연승을 달리며 4위로 도약했다. SK 와이번스와 롯데 자이언츠는 각각 5, 6위로 밀려났다. 나머지 팀은 전반기 마지막 순위를 그대로 이어갔다. 한화 이글스(7위)와 LG 트윈스(8위)는 지난 주 나란히 4승2패를 기록하며 6위 롯데를 위협하고 있다. 한화는 롯데에 1경기, LG는 한화에 1.5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다. KIA는 k와 SK를 만나 전승을 달성했다. 6연승은 올 시즌 팀 최대연승 타이더다. 시즌 전적 46승1무48패로 5할 승률에도 가까워졌다. KIA는 높은 마운드의 벽과 타선의 화력을 앞세워 선전했다. 팀 평균자책점은 3.17로 1위를 달렸고, 타율 역시 0.350로 가장 높았다. OPS(출루율+장타율)에서도 선두(0.952)를 차지했다. 외국인 투수 헥터 노에시는 6연전 시작

과 끝을 책임지며 선발 2승을 챙겼다. 지난 28일 k전에서는 6이닝 5피안타 무실점, 전날 SK전에서는 완투로 마운드를 지켰다. '토종 에이스' 양현종도 지난 30일 경기에서 완투승(9이닝 6피안타 1실점)을 거뒀다. 마무리 임창용이 아직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등 불안 요소는 있지만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선발진을 비롯해 불펜진이 역할 분담을 하며 팀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타선에선 노수광이 홈런 1방을 포함해 타율 0.444(27타수 12안타)를 기록하며 7타점 10득점을 쓸어들었다. 나지완은 안타 8개를 때리며 7타점 5득점을 올렸다. 불넷은 8개나 골라냈다. 브릿 필은 대포 2방을 날리며 10안타 7타점 6득점을 기록했다. 이번주 한화, 삼성과의 6연전이 중요하다. 넥센과 승수가 7경기 차이가 나는 만큼 3위 진입은 아직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지만 치열한 중위권 다툼 안에서 차근차근 승수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4위부터 7위까지의 격차는 불과 3경기차. 연패를 당한다면 언제든지 뒤집어 질

수 있다. LG는 지난주 롯데와 NC로부터 위닝시리즈를 따내며 4연승을 달렸다. 7연속 루징시리즈로 승패 마진이 -13까지 벌어졌었지만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스캇 코프랜드를 대신해 팀에 합류한 새로운 외국인 투수 데이비드 허프와 임찬규라는 새로운 자원을 얻은 것이 LG에겐 호재다. 허프는 27일 롯데전에서 7이닝 3피안타 1실점 호투로 데뷔 첫 승을 신고했다. 지난 29일 NC전에서 깜짝 선발로 투입된 임찬규는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지만 올 시즌 처음으로 50이닝 이상을 버텨주며 불펜진의 체력 소모를 막아줬다. '에이스' 헨리 소사도 30일 NC전(6이닝 3실점)에서 1승을 따내며 제 몫을 다했다. 다만 토종 에이스 우규인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악재다. 지난주 두산이 넥센과 한화에 위닝시리즈를 내주는 등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지만 리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2위 NC와는 2.5경기차. 하위권에선 삼성과 k가 9-10위 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k에 0.5경기차로 근소하게 9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의 이번 6연전 상대는 SK와 KIA다. /김민근기자



KIA 타이거즈의 외국인 투수 헥터 노에시는 6연전 시작과 끝을 책임지며 선발 2승을 챙겼다. 지난 26일 k전에서는 6이닝 5피안타 무실점, 전날 SK전에서는 완투로 마운드를 지켰다. /김민근기자



임실군,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 개최

전북사격연맹(회장 심민)이 주관하고 한국중·고등학교사격연맹(회장 김덕천)이 주최하는 '제42회 회장기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가 청양면 소재 전북종합사격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중·고등학생 1천00여명이 참가해 공기소총, 공기소총 등 10여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북도 사격 명성을 대외적으로 크게 알리고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대회를 위해 방문한 관계자 및 학생들에게 지역 특산물 구매,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용, 군 관광 명소 홍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종합사격장은 '2018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제9회 임실군수배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기자·김민근기자

올 시즌 K리그 이적시장 74명 추가 등록

올 시즌 K리그 이적시장에서 74명의 선수들이 새 동지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6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선수 추가등록을 받은 결과 국내·외 선수 74명이 새롭게 등록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 기간에 K리그 클래식(1부리그) 팀들은 국내 선수 19명, 외국인 선수 16명 등 총 35명(이적 8명, 임대 10명, 자유계약 14명)을 영입했다. K리그 챌린지(2부리그) 팀들은 국내 선수 28명, 외국인 선수 11명 등 총 39명(이적 4명, 임대 11명, 자유계약 19명)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반면 K리그 클래식 팀은 38명, 챌린지 팀은 32명 등 총 70명을 내보냈다. 이적시장 결과 올 시즌 하반기 K리그 등록 선수는 총 804명이 됐다. K리그 클래식 등록선수는 408명(팀당 평균 34명), K리그 챌린지 등록선수는 396명(팀당 평균 36명)이다. /김민근기자

오마이걸 '내 애길 들어봐' 음원차트 상위권 진입

그들 '오마이걸(OH MY GIRL)'의 기세가 무섭다. '오마이걸'은 1일 공개한 새 앨범 '서머 스페셜(SUMMER SPECIAL)' 타이틀 곡 '내 애길 들어봐'로 멜론 9위, 지니 4위, 엠넷·네이버 뮤직 2위, 올레뮤직 5위 등 주요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지난해 4월 데뷔한 후 발표한 다섯 장의 앨범 중 가장 높은 성적이다. 데뷔곡 '큐피드(CUPID)' 이후 '클로저(CLOSER)'와 '라이어 라이어(LIAR LIAR)' '윈디 데이(WINDY DAY)' 등 월 톱 없는 신곡으로 특유의 동화적인 분위기와 콘셉트를 밀어붙인 성과다. 최근 메인보컬 승희가 JTBC에서 방송되는 걸 그룹 보컬 경연 프로그램 '걸스프릿'에서 놀랄 만한 가창력으로 주목받으며 팀의 이름을 알리고 상승세를 견인하기도 했다. /김민근기자

이대호, 14경기 25일만에 시즌 13호 홈런포 가동



이대호는 1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펼쳐진 2016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서 7번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해 3회초 홈런을 때려내는 등 3타수 1안타(홈런) 2타점 2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이대호가 홈런을 때려낸 것은 지난달 7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14경기, 25일만이다. /김민근기자

시즌 타율 0.263 소폭 상승

'빅보이'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가 14경기만에 대포를 가동했다. 이대호는 1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 필드에서 펼쳐진 2016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서 7번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해 3회초 홈런을 때려내는 등 3타수 1안타(홈런) 2타점 2볼넷 1득점을 기록했다. 이대호가 홈런을 때려낸 것은 지난달 7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14경기, 25일만이다. 7월 한 달 동안 타율 0.204에 그치며 부진을 겪었던 이대호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10경기에서도 25타수 1안타에 그치며 빈타에 허덕였다. 그러나 이날 오랜만에 손 맛을 보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이대호가 안타를 신고한 것은 지난달 27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 이후 4경기 만이기도 했다. 이대호의 시즌 타율은 0.262(206타수 54안타)에서 0.263(209타수 55안타)으로 소폭

올라갔다. 시즌 타점도 39개로 늘어났다. 시애틀이 벨트 크루스의 투런포로 선취점을 뽑은 1회 2사 1, 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대호는 볼넷을 골라 걸어나갔다. 후속타자가 좌익수 뜰공으로 물러나면서 만루 찬스가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팀이 4-0으로 앞선 3회 1사 1루 상황에 타석에 들어선 이대호는 상대 선발 매터스의 초구 커브를 통타,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작렬했다. 시즌 13호포, 6회 선두타자로 나선 이대호는 또다시 볼넷을 골라냈다. 이대호는 후속타자 마이크 주니노의 2루타로 3루를 밟았으나 후속타자가 더 이상 터지지 않아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7회 삼진으로 돌아선 이대호는 선두타자로 나선 연장 10회 유격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시애틀은 12회 연장전 접전 끝에 컵스에 6-7 끝내기 패배를 당했다. 시애틀은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3위(52승51패)를 유지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